

“동화 속으로 초대”...광주 충장축제 개막

15~19일 금남로·충장로 일대...추억·동심 전달

몰입형 뮤지컬 ‘개막쇼’...서커스·합창 등 다채

세계적인 도심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15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축제는 ‘충장축제 제22번째 이야기,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15일 오후 7시 금남로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쇼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추억’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동화’라는 주제를 통해 현실과 동화 속 환상이

아우러진 세계 속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이날 펼쳐질 개막쇼는 의전 행사를 지양하고 몰입형 판타지 뮤지컬과 미니콘서트가 결합된 무대로 채워진다.

총 4막으로 구성된 개막쇼는 △식전행사, 동화 세계로의 초대 △1막, 충장동화책장을 펼치다 △2막, 추억의 동화 속으로 △3막, 새로운 추억의 불꽃 △4막, 추억의 동화로 만든 축제 등 뮤지컬, 서커스, 합창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

다. 또 ‘아빠의 말씀’ 정여진, ‘마법의 성’ 김광진, ‘트루트 퀸’ 장윤정이 화려한 공연을 펼치며 김창완 밴드가 무대에 올라 개막쇼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날 오후부터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빛의 음성 근처에서 ‘추억의 테마거리’ 개관식이 펼쳐진다.

이 거리는 7080 추억의 공간인 충장로다방, 아광 나이트, 전파사, 슈퍼마켓, 여인숙 등을 재현해 관람객을 추억 속으로 소환한다.

특히 추억 유랑단의 퍼포먼스도 볼 수 있어 관람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오후 3~6시 금남로 1~3가에서는 13개

행정동 모뉴먼트 전시가 열린다.

15~17일 3일간 볼 수 있는 전시로, 각 동마다 하나의 동화를 선정해 만든 모뉴먼트를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한편, 올해 축제는 1일자 개막의 날(15일), 2일자 아시아 문화의 날(16일), 3일 차가죽의 날(17일), 4~5일자 행진의 날(18~19일) 등의 주제로 준비됐다.

특히 16일 ‘아시아 문화의 날’에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놀이·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가 운영되며 18일에는 광주의 5·18 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콘테스트가 첫 선을 보인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지 전남(여수) 선정 기념 강명록 전남도지사가 14일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열린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지 전남(여수) 선정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1면 ‘반도체 클러스터’서 계속

서 의원은 “국토 이용의 대원칙은 ‘선 계획, 후 개발’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 등 핵심 인프라 검토 없이 먼저 지정이 이루어졌다”며 “결국 수도권에 초고밀도로 산업 단지를 몰아넣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클러스터 부지는 서울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면적당 필요 전력은 서울의 32배 수준이며 이는 서울·남서울발전소 전체 전력용량의 약 60%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수도권에 과도하게 전력이 집중되는 구조는 국가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은 이미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며, 최근 글로벌 기업 오픈시가 호남 지역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 중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부도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반도체 산업 입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 과밀 구조를 완화하는 분산형 국가산단 배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이유로 LNG 발전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가 LNG 3GW 신설을 추진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호남 등에 클러스터 분산 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 “고사 위기 처한 태양광발전업체 구제 시급”

“윤 정권의 ‘죽이기’ 여파...직생기존 신속 개정해야”

조달 취소 업체들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 제재 당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업체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부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업체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업체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사 이후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조달처는 32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 업체당 최소 3~4개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광장히 이래저런 행정처분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이모 전 조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태양광

업체를 초도화한 다음에 곧바로 몰러나다”며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년간 방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좀 바뀌어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기부는 태양광발전업체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옛 방직터 공원 밑그림 나왔다

설계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 설명회

시, 공원 조성·녹지·건축물 단계적 추진

근대 산업화의 역사를 품은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에 조성될 문화공원의 밑그림이 나왔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조성하는 문화공원의 지명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를 갖고, 산업유산이 깃든 공장터의 새로운 변화를 공유했다.

이번 지명설계공모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단지와 연계한 문화공원(3만5000㎡)의 보존건축물과 녹지 공간을 구체화해 지역과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됐다.

당선작은 ㈜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합동원, 전남대 이상훈 교수팀이 공동으로 제안한 ‘모두를 위한 도시, 항상 함께하는 공원(City for All, park for Always)’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는 국내 최상의 조경·건축 전문가 5개 팀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장소성, 주변 도시와 연계성, 산업유산 활용의 창의성, 시민 참여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9월26일 당선작을 확정했다.

당선작은 산업유산을 단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일상과 도시

·문화·경관을 엮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재해석했다. 과거의 기억을 살리면서 도시 맥락을 연결하고,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높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개발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가 시행하는 문화공원1 및 녹지 조성은 내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또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문화공원2의 건축물 리모델링은 타당성 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석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 대표는 “이번 공원은 산업유산과 지역 문화를 잇는 새로운 도시거점이 될 것”이라며 “구도심 활성화와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의 중심 기반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숙 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는 근대 산업화의 역사를 품은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 곳이 광주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잇는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심속 명품 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SRF 증자액 포스코이앤씨 주장 반박

국감 출석 송치영 대표이사 637억원 합의 가능성 시사

광주시와 자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운영비 갈등을 빚고 있는 포스코이앤씨가 증자 비용을 기존에 알려진 2100억원이 아닌 637억원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처럼 밝히는데 대해 광주시가 “기존 78억원에서 합의 진행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전남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에게 광주SRF 분쟁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송 사장이 광주 SRF 분쟁과 관련해 손실 보전 요구액이 2100억원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존실 요구액은 637억원으로 추가 증액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637억원도 포스코측의 주장이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현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포스코측은 합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송 사장의 발언은

2100억원대 운영비를 637억원으로 낮추는 것처럼 비취진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중재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SRF 분쟁은 78억원에서 시작해 갑자기 미래 운영비까지 포함돼 2100억원으로 뛰었다”며 “637억원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측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운영비 1497억원도 광주시가 지불해야 한다며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입장은 중재심판을 중단하고 78억원에서 포스코이앤씨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2100억원 중액 신청을 변경해준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오는 27일 재개되는 8차 심리에서 광주시의 입장을 판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내일의 꿈을
꿈꿔가십시오

종합인쇄전문기업

(주) 다원

최저가
인쇄요원들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궁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